

2연패 노리는 ‘어마어마’ 대항마 누구냐

기복 없는 라온더파이터 ‘경계 1호’ 폭발적 뒷심 지닌 와우와우 출사표 상승세 탄 대한질주·쏜살도 도전장

국내 단거리 최우수마를 가리는 ‘스프린터 시리즈’의 첫 경주로 ‘부산일보배(G3)’ 대상경주가 4월 2일 뱃츠런파크 부산경남에서 6경주로 열린다. ‘스프린터 시리즈’는 ‘부산일보배’, ‘SBS스포츠스프린트(G3)’, ‘서울마주협회장배(G3)’ 등 세 경주로 이루어진 1200m 시리즈다. 누적승점이 가장 높은 말이 올해의 단거리 최우수마로 1억 원의 인센티브를 가져간다. 이번 경주에는 지난해 우승자인 어마어마가 2연패에 나섰고 복승률 100%로 경마팬에게 인기 높은 라온더파이터 등이 도전장을 냈다. 단거리 최강의 자리에 도전장을 낸 주요 경주마 5두를 소개한다.

●어마어마(서울, 6세, 수, 미국, 레이팅 136, 승률 70.0%, 복승률 80.0%)
지난해 ‘부산일보배’, ‘코리아스프린트’, ‘국제신문배(L)’ 우승으로 단거리 최강임을 입증했다.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7연승을 달리기도 했다. 1200m는 9회 출전해 모두 3위 안에 입상했다. 1200m 최고기록은 1분10초 8로 라온더파이터에 이어 출전마 중 두 번째로 빠르다. 평균기록은 1분11초7로 출전마 중 가장 빠르다.



4월 2일 뱃츠런파크 부산경남 6경주로 열리는 ‘부산일보배 대상경주’에서 유력한 우승마로 꼽히는 어마어마(왼쪽)와 라온더파이터.

●라온더파이터(서울, 5세, 수, 한국(포), 레이팅137, 승률 76.5%, 복승률 100.0%)
복승률 100%를 자랑한다. 17번 출전해 1위 13번, 2위 4번으로 기복 없는 실력을 보여주었다. 레이팅 137로 부경 위너스맨에 이어 서울 부경 통합 레이팅 2위다.
2021년 ‘서울마주협회장배’에서는 어마어마를 상대로 6마신차로 우승했으나, 지난해 ‘부산일보배’에서는 어마어마에 밀려 2위를 했다. 지난해 ‘오너스컵(G3)’과 ‘KRA컵클래식(G2)’에서 우승하며 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올라운더



4월 2일 뱃츠런파크 부산경남 6경주로 열리는 ‘부산일보배 대상경주’에서 유력한 우승마로 꼽히는 어마어마(왼쪽)와 라온더파이터.

●와우와우(서울, 4세, 수, 한국, 레이팅 85, 승률 33.3%, 복승률 : 73.3%)
카우보이같은 자마로, 지난해 11월 출전한 1600m를 제외하고는 7월부터 출전한 경주에서 모두 2위 안에 들었다. 올해 1월 ‘세계일보배(L)’에서는 11번 외곽에서 출발했으나, 폭발적인 주력으로 역전하며 유력한 우승 후보 위시미와 라온더스퍼드를 제치고 깜짝 우승했다. 지난해 ‘코리아던비(G1)’에서도 후미에서 경주를 전개했으나, 직선주로에 접어

들며 7마리를 따라잡는 놀라운 추입을 보여준 바 있다.

●대한질주(서울, 5세, 수, 한국(포), 레이팅109, 승률 47.1%, 복승률 70.6%)
3세인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출전한 전 경주에서 우승하며 6연승을 달성했다. 지난해 ‘국제신문배’에서는 어마어마와 접전을 벌였으나 아쉽게도 머리차로 2위에 그쳤다. 하지만 2021년 12월 1800m 경주에서는 선행으로 경주를 이끌며 6마신차로 우승했다. 우승한 경주를 보면 게이트 위치와 상관없이 선행 또는 선입으로 경주를 이끌며 기세를 끝까지 이어나갔다는 공통점이 있다. 체중 500kg 초반대로 출전마 중 체격이 좋은 편이다.

●쏜살(부산, 7세, 수, 미국, 레이팅127, 승률 38.7%, 복승률 54.8%)
출전마 중 나이가 많은 팬이다. 레이팅 127로 부산 레이팅 공동 2위다. 그동안 1200m와 1400m 단거리 경주에 주력했다. 2019년 3세 첫 경주를 1위로 시작해 대상경주를 제외하고는 3세와 4세에 출전한 경주 대부분에서 순위권 내에 들었다.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다소 부진했으나, 지난해 5월 이상영 조교사로 바뀌면서 기록이 단축되는 등 침체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1200m 경주에서는 1분 11초9로 자신의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日경주마 우스바 테소로 ‘두바이월드컵’ 우승

25일 두바이 메이단 경기장에서 열린 ‘제27회 두바이월드컵(G1)’에서 일본 경주마 우스바 테소로가 우승했다.

총 상금 1200만 달러(약 156억 원)를 두고 전 세계에서 온 15두의 경주마들이 2000m 레이스를 펼친 이번 경주에서 우스바 테소로는 폭발적인 추입으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었다. 일본은 2월 사우디컵(G1)에서 우승과 3, 4, 5위를 차지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두바이월드컵에서도 우승해 경마 강국임을 과시했다. 일본은 올해 두바이월드컵에서 최종일 메인 경주를 포함해 3개의 경주서 우승했고, 16두의 경주마들이 순위권 성적을 거두어 하루 만에 약 177억 원의 상금을 휩쓸었다.

두바이월드컵은 현 아랍에미리트 부통령 겸 총리인 셰이크 모하메드의 주도로 1996년부터 시작돼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열리는 세계 최정상급 경마 경주다. 두바이월드컵 메인 경주는 사우디컵(최고상금 2000만 달러·260억 원)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경마축제로 꼽힌다.

김재범 기자

야간 벚꽃축제 연계 ‘말마프렌즈 NFT 페스티벌’



한국마사회는 뱃츠런파크서울의 ‘야간 벚꽃축제’와 연계해 ‘말마프렌즈 NFT 페스티벌(사진)’을 진행한다. 행사 장소인 ‘NFT 페스티벌 Zone’은 뱃츠런파크서울의 해피빌 관람대 ‘놀라운지’ 입구 앞 잔디광

장에 조성했다. 각종 NFT 홍보부스와 먹거리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페스티벌은 4월1일부터 16일까지 매주 금요일 열린다. 마사회는 지난해 디지털 전환 관련 조식을 신설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하는 등 디지털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외부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왔다.

마사회·서울조교사協 “경마장 출발 안전성 강화”

마사회는 24일 서울조교사협회와 ‘서울경마장 출발 안정성 강화’를 위한 공동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경마 출발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실질적 안전 강화조치를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마사회는 출발현장에 전문성을 보유한 근무자를 보강하고, 출발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서울조교사협회는 경주마 습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말관리사를 출발대 진입과정에 참여시켜 지원한다.

편집 | 한민구 기자 stopspe@donga.com

마사회 ‘경주마 전용 수영장’ 문 활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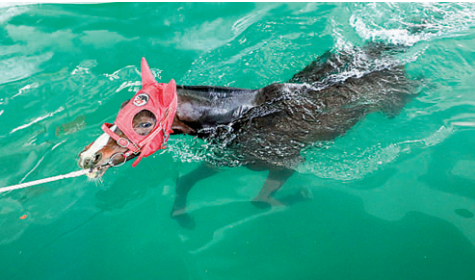
수중 재활·훈련 등 전방위 지원
지난해 1352두 6만회 이상 이용

과천 서울경마공원에서는 16일 때 이른 수영장이 개장했다. 바로 경주마 전용 말수영장이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현재 서울과 부경 경마장에 총 3개의 말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다. 오직 말만 이용할 수 있는 말수영장은 지난해 1352두의 경주마들이 6만 회 이상 이용했다. 이처럼 많은 경주마들이 말수영장을 찾는 것은 훈련과 재활치료 효과 때문이다.
수중치료를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부력을 통해 관절에 부담을 덜어주

고 물의 저항력을 활용해 심폐지구력 향상과 근력 발달의 효과까지 볼 수 있는 치료법이다. 이는 동물에게도 동일한 효과를 준다.

마사회는 1987년 말수영장을 개소해 겨울철을 제외한 3월부터 11월까지 경주마의 수중재활 및 훈련을 돕고 있다. 다기관 육과 관절이 곧 생명인 경주마들에게 다리 부상은 조기은퇴로 이어질 정도로 치명적이다. 관절이나 인대 등의 부상으로 지상 훈련이 어려운 경주마들은 수영을 통해 부상 주변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

부상당한 말만 수영장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조교사들이 더 빠르고 강한 경주마를 육성하기 위한 트레이닝 방법으



한국마사회의 말 전용 수영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경주마. 심폐기능 향상과 근육의 균형잡힌 발달로 지구력을 높이는 데도 효과가 있다.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로 수영을 선택한다. 말수영장의 깊이는 3.3m로 말의 키보다 훨씬 깊다. 말들은 수압으로 인한 흉곽압박으로 지상보다 더 강하게 호흡하게 되는데 이로써 심폐능력 향상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수영 시 지상훈련에서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사용해 균형잡힌 근육발달로 지구력 향상효과도 얻을 수 있다. 지상훈련 후 인대의 열감을 낮춰

주는 냉찜질과 같은 효과도 얻을 수 있으며 어린 경주마들의 성장촉진 및 체중관리에도 효과가 있다.

마사회는 현재 경마정보 홈페이지와 경마정보지를 통해 각 조교사 및 마필별 수영훈련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경마팬들은 이를 통해 경주마의 컨디션과 운동량을 엿보고 경주결과를 예측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실제로 올해 가장 적극적으로 수영훈련을 진행 중인 48조 이준철 조교사는 공교롭게도 최근 1년간 승률 1위를 기록 중이다.

이 조교사는 “경주마 심폐지구력 향상에 특히 도움이 되고 여름철 폭염 속 컨디션 조절에도 탁월하지만 체질적으로 수영이 맞지 않는 말들에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에 수영훈련에 적합한지 빨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영훈련의 효과와 유의점을 설명했다.

김재범 기자

LIV 골프 탈퇴 땀 ‘위약금 폭탄’…미켈슨 1조원 뺏어야

계약금의 2~4배 위약금 조항 담겨
1년 10~14개 대회 필수 출전 명시
미켈슨, PGA 무관 ‘마스터스’ 출전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의 후원을 받는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LIV 골프)는 천문학적인 돈을 앞세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소속이던 스타 선수들을 대거 영입했다.

필 미켈슨, 브라이언 디셔보, 더스틴 존슨, 브룩스 켄카, 패트릭 리드(이상 미국) 등 메이저대회 우승 경험이 있는 선수들을 포함해 많은 선수들이 LIV 골프로 동지를 옮겼다. 이들은 PGA 투어로부터 영구제명을 받아 PGA 투어 주최 대회에는 더 이상 참가할 수 없다.

대부분 영구제명을 각오하고 돈을 쫓아간 선수들이지만, 만약 이들이 LIV 골프를 떠난



미켈슨

다고 하면 받은 돈 이상의 거액을 위약금으로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스포츠전문 매체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SI)는 30일(한국시간) LIV 골프로 이적한 선수들의 계약서에 따르면 투어를 떠날 경우 계약금의 2~4배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고 전했다.

계약금이 높은 선수일수록 위약금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금으로 2억 달러(2610억 원)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노장 미켈슨의 경우 LIV 골프를 떠나려면 최대 8억 달러(1조440억 원)를 반환해야 하는 셈이다. LIV 소속 스타급 선수들은 대개 1억 달러(1300억 원) 안팎의 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SI는 또 LIV 골프의 계약서에는 선수에 따

라 1년에 10개에서 14개 대회에 반드시 출전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엄청난 돈을 안기며 선수들을 끌어 모으면서 그에 걸맞은 위약금과 단서조항도 삽입한 셈이다.

한편 미켈슨은 4월 6일 개막하는 시즌 첫 메이저대회 마스터스 토너먼트에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회는 PGA 투어가 아닌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이 주최·주관해 출전 자격을 갖춘 LIV 골프 소속 선수들도 참가할 수 있다.

마스터스에서 3차례 정상에 올랐던 미켈슨은 지난해엔 출전을 포기했지만 올해는 출전의지를 내비치며 지난 주말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을 찾아 연습라운드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켈슨이 이번 대회에 출전하면 개인 통산 30번째 마스터스 출전이 된다. 이번 대회에는 LIV 골프 소속 18명 선수가 참가할 예정이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대한체육회, 국대선수촌 숙소 ‘휴식의 질’ 제고

베스트슬립과 공식후원 계약
최고급 침대·매트리스 배치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홍)가 28일 베스트슬립(대표이사 서진원)과 침대 및 매트리스 부문 공식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

대한체육회 침대 및 매트리스 부문 공식 파트너(1등급)로 선정된 베스트슬립은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팀코리아)이 최고의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진전 국가대표선수촌에 최고급 침대를 제공한다. 아울러 2028년 말까지 대한체육회 휘장 및 공식 파트너 명칭 사용과 대한체육회 및 팀 코리아 엠블럼, 국가대표 선수단, 캐릭터 ‘달리’ 등

지식 재산을 활용한 마케팅 프로모션 등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

이기홍 대한체육회장은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는 훈련시간만큼이나 휴식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베스트슬립의 최고급 침대를 통해 국가대표선수촌 숙소 휴식의 질이 높아진다면 대한민국 선수들이 국제무대에서 최상의 기량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서진원 베스트슬립 대표는 “대한체육회의 공식 파트너가 되어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30여 년간 쌓은 베스트슬립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최적화된 매트리스를 제공해 선수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최고의 플레이를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